

Interesting Articles for KEMA Members

Signo-pelvic-rbuffm with forward trunk bending in normal

All pelvin bending in the signo-pelvin bending in the sign-pelvin bending in the sign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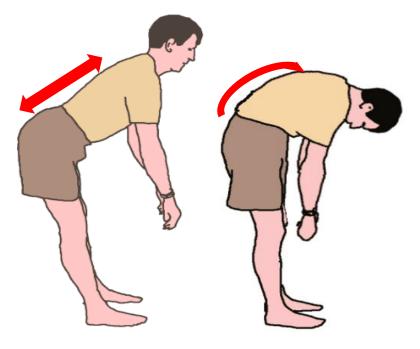
Spino-pelvic-rhythm with forward trunk bending in normal subjects without low back pain

Eur J Orthop Surg Traumatol. 2013; Epub ahead of print

일 상 생활에서 앞으로 숙이는 동작은 많이 발생한다.

앞으로 숙이는 자세에서 허리골반리듬(lumbo-pelvic rhythm)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.

골반의 움직임이 제한되면 같은 각도를 굽히기 위하여 허리의 움직임을 과도하게 일으키게 되고, 이는 요퉁 의 원인이 된다.



이전 연구에 의하면…

앞으로 숙이기의 정상 각도: 110도 (허리뼈 40도 + 골반 70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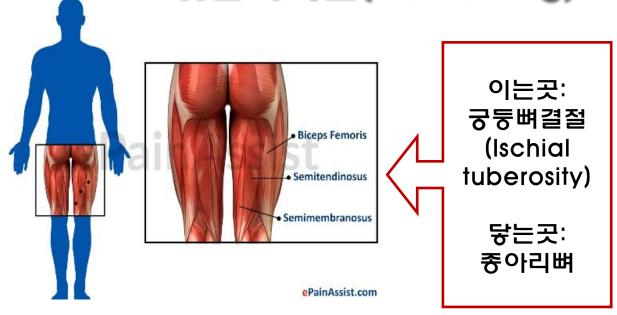
초기 - 허리의 움직임 > 골반의 움직임

중기 - 허리의 움직임 = 골반의 움직임

후기 – 허리의 움직임 < 골반의 움직임



뒤널다리근(Hamstring)



뒤넙다리근은 골반의 궁등뼈결절에 부착되어 있어서 골반의 움직임에 크게 기여한다.

되납다리근이 단축되는 것은 골반의 움<mark>직임을 제한하고,</mark>이를 보상하기 위해 허리뼈의 움직임이 <mark>과도하게 발생</mark>되게 된다. 따라서 뒤넙다리근의 단축은 <mark>허리의 통증에</mark> 크게 기여하게 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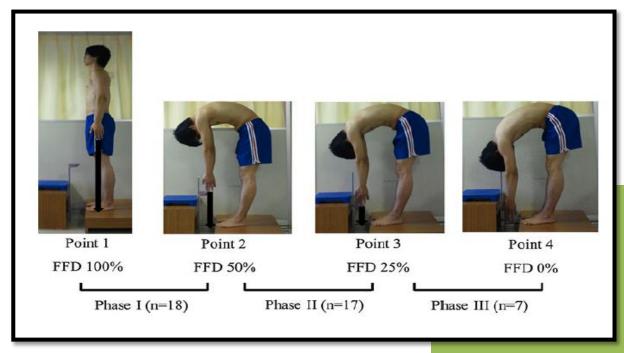
그렇다면… 앞으로 구부리는 동안에 뒤넙다리근의 **단축이** 척추, 즉 등뼈(Thorax)와 허리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자!!



앞으로 구부리기 검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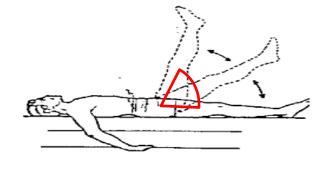
정상인을 대상으로 네가지 방법의 앞으로 구부리기 검사를 하여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의 *등뼈, 허리뼈, 엉치뼈* (sacrum)의 경사각을 측정하였다.

- ✓ FFD(Finger to Floor Distance)
 - : 바로 선 자세에서 손가락과 바닥 사이의 거리



뻗은다리올림검사(Straight leg raising test)

각 다리를 두번씩 측정하여서 79도 이하<mark>이면</mark> 뒤넙다리근 단축으로 판단하였다.





허리뼈와 골반

Phase 1 - 허리뼈 : 골반 = 4 : 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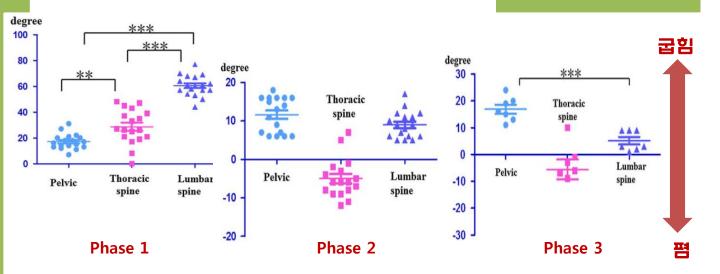
Phase 2 - 허리뼈 : 골반 = 1 : 1

Phase 3 - 허리뼈 : 골반 = 0.4 : 1

⇒구부리는 <u>초기에는 허리의 움직임이 4배 많이 발생</u>하였지만, 점점 더 많이 구부릴 수록 골반의 움직임이 허리보다 많이 움직 이는 양상을 볼 수 있었다. 이는 이전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.

등뼈와 골반

Phase 1에서는 등뼈의 <u>굽힘</u>이 많이 발생하였지만
Phase 2와 3에서 골반의 각도가 중가되면서 <mark>등뼈의 각도가 반</mark>대로 감소되어 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.





이 연구에서 앞으로 숙이는 동안 골반과 허리의 움직임이 반비례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. 허리뼈의 움직임이 과도한 것은 허리의 통증과 관련이 있다. 따라서 허리의 움직임을 감소시키기 위해 골반의 움직임을 증가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. 골반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데는 뒤넙다리근의 역할이 크다. 따라 서 뒤넙다리근의 유연성을 회복하는 것이 허리의 움직임을 감소시 킬 수 있을 것이다.

허리에 통증이 있는 사람들을 치료할 때, 뒤넙다리근의 단축이 있는지 확인한 뒤, 단축이 있다면 스트레칭을 하여 골반의 움직임을 증가시켜주면 허리의 통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.

라고 이 논문을 근거로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.
-KEMA 책임 연구원 안선희-

-문의사항은 KEMA 홈페이지 기사에 댓글로 남겨주세요-

